

■ 상록탑 실종된 '시선'을 찾습니다



박하경 자치행정팀 취재부장

'00구에서 실종된 000씨(여, 79세)를 찾습니다.', '00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72세)를 찾습니다.'

요즘 재난 문자로 자주 받는 알림 내용이다. 10월 한 달 동안만 서울에서 이러한 알림이 27회나 발송됐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실종자의 대다수는 노인이었다.

알림을 보고 있자니 중고등학생 때 노인 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 한 경험이 떠올랐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센터에 발을 들이면 바빠 움직이는 도심과는 완전히 상반된, 착 가라앉은 분위기에 압도되곤 했다.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분들은 치열한 하루를 살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시설을 청소한 후 지친 몸으로 밖을 나서면, 웬지 건물 밖 세상이 건물 안 세계엔 너무도 무관심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고령화사회가 된 지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보는데,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에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이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월은 경로의 달이었고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관련 기사를 보던 중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런 날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 궁금해져 찾아본 결과, 국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2020년 총 신고 건수는 16,973건이나 된다. 사람들은 이를 노인의 가족이나 노인 복지 기관 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긴다. 그렇다면 학대 피해 노인은 '알아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혜택을 잘 받고 있을까.

그동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대다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 서비스였다. 더 심층적으로 돕는, 재가 서비스 연결과 같은 복지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의 혜택

이 제공된 사례는 매년 전체 사례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과연 심층적서비스가 필요한 피해 비율이 10% 미만일지 의문이 든다.

독거노인의 자기 방임이 학대 유형의 하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행위를 포기해 심신이 위협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이를 온전히 개인적 의지박약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그들도 언젠가는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그저 사회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스스로에게마저 무관심하기로 정해버린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다른 어떤 학대보다 사회가 더 큰 책임을 지는 유형일 수 있다.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다.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닥페이스'가 인터뷰한 요양보호사의 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로서 얻는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 수준 혹은 그 아래라고 한다. 그마저도 고용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 노인 돌봄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후 진심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직장에 갈 능력이 없어 노인의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주는 아줌마들' 정도다. 이 환경에서 제대로 된 노인 복지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람일지 모르겠다.

세상은 젊은 사람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만 보려 한다. 노인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그들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밀려난다. 이미 상상하리만큼 수차례 있었던, 노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에 대한 담론도 잠시뿐 사회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린다. 발 빠르게 쫓아가 화려한 첨단 기술을 누리는 자들이 멋진 사람들이며, 사회는 그들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뒤쳐진 이들까지 쫓기 어려워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노인 캐릭터는 차매를 앞다 절절한 자식 사랑을 보여주는 세상을 떠나는 등 몇몇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종종 감성을 자극하는 용도로 쓰이고 이내 잊히고 만다. 7명 중 1명이 노인인 세상에서, 노인이 중심인물로서 극을 이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양한 노인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엔, 다양한 젊은 캐릭터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너무도 뜨겁다. 젊음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노인은 너무도 쉽게 지워진다.

사람들의 시선 끝에 노인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도 짧다. 많은 노인들이 바빠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만큼은 바쁜 세상의 속도를 추월하고 있는 듯하다. 실종된 노인들은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을 만나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실종된 '시선'은 언제쯤 7분의 1의 인구에 닿을 수 있을지 요원하다. 이 사회를 위해 어디를 응시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 사진부 칼럼 서울의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



김지원 사진기자

별을 보러 평창에 갔다. 서울보다는 많았지만 쏟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의 카메라에 하늘을 가득 채운 별이 담겼다. 별들은 그 하늘을 다 덮고 있었다. 지금도 하늘엔 별들이 그렇게 빛을 내고 있을 테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놓고 10초에서 15초 동안 길게 촬영하면 내 눈이 놓친 빛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도 그만큼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새삼 놀란다.

평창에서 나는 사진을 통해 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끼고도 행복해했다.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별을 평창에서 보고, 내 두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많은 별을 찍었다. 평창에 다녀온 후 나는 가끔 보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서울의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다.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잠미한 송이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 밤, 서울의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 여론광장 800번대 서가에는 '헤세'가 있고 '위로'가 있다

황해정 교공 16

"헤세"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기어코 올라갔다. 중앙도서관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도 3층 800번대 서가. 그곳엔 헤세가 있다. 「데미안」(1919)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르만 헤세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고뇌와 인간 내면의 양면성에 대해 고찰을 통해 휴머니즘을 지향한 작가다. 흑여나 학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힘들어한 적이 있다면 헤세가 답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의 자전적 초기작 「수레바퀴 아래서」(1906)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이화인이라면 자신과 똑같은 학창 시절을 보낸 그에게 큰 동질감을 느낄 것이다.

헤세가 말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가 고통과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찢어질 듯 아픈 사랑을 하는 이가 있다면 헤세의 산문, 단편, 시 모음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를 추천한다.

장차 왕으로 추대될 촉망받는 청년이었으나, 부와 권력의 무상함에 지쳐 삶에 대한 깨

달음을 얻고자 친구와 함께 고향길을 떠나는 주인공이 있다. 그러나 따라나선 고향길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된다. 여러 차례의 정신적 번뇌 속에서 마침내 그는 몸을 던지려 했던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시간의 초월, 즉 무상성의 극복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생의 진리를 깨닫는다. 헤세의 중기작 「싯타르타」(1922)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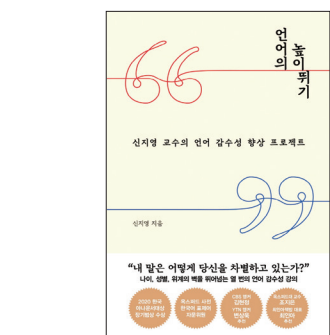
이처럼 그가 묘사한 청소년의 번뇌와 고통, 그리고 사랑에 대해 공감하며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헤세의 생애가 궁금해진다. 곱상하게 생긴 점잖은 외모와 달리 헤세는 결코 엘리트 코스를 걸지 못했다. 명문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신경쇠약증 등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시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신학교를 도망친다. 그 후 자살 기도, 정신요양원 생활을 하기도 한 그다.

찾아보니 그가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에서도 약 50만 명이 앓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흔한 인격장애이다.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조금만 질책을 들어도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꺼진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마저 힘들다 ▲늘 이상한 사람

과 연애를 해 관계가 언제나 엉망으로 끝난다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내 행복은 뭔지도 잊어버린다.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위대한 작가가 한없이 어린 인간이었다. 아니다 한없이 평범한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것기에 전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오랜 시간 사랑받는 고전을 만들어냈으리라.

삶에 지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헤세가 있는 800번대 서가 앞에서 멈췄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고민이 될 때마다 헤세는 말한다. "진리는 분명 없네. 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가르침',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그것만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가르침이란 존재하지 않아. 자네는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완성을 바라야 하네" 「유리알 유희」(중에서). 그가 세상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헤세 문학의 총체라 불리는 「유리알 유희」(1943)를 다 읽지 못했다. 유려한 문체의 현격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스펙 쌓기에 바쁘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쩌면 학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헤세를 만나고 가는 것이 스펙 하나보다 더 큰 용기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완독이 졸업 목표다!

■ 금주의 책



언어의 높이뛰기: 신지영 교수의 언어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신지영 지음 / 서울 / 인플루엔셜 / 2021

국어학자인 저자는 평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 세대가 비대칭적이고 가부장적인 언어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은 이대로 관망은 가라고 묻습니다. 미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심코 써온 일상의 말들을 이제는 과감히 새로 고침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불평등과 차별을 감내

해야 하는 가족간 호칭 문제나 서비스 현장에서 주로 맞닥뜨리는 사물 존재가 공손성의 요구 뒤에 숨은 일상의 갑질이라는 자각은 놀랍습니다. 코로나19 범 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단어들 이 새롭게 생겨나고 사용되고 있는 이때 언어가 권력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낮은 언어 환경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상적이기에 더욱 무디지기 쉬운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언어 감수성이란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점검하고 표현들에 민감해지고 언어 사용에 있어 잘못된 지식이나 믿음은 없는지 바라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상대를 향하는 일기기에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 책/
5층 일반자료실 400 신819인

■ Z의 시선 어린 '금쪽'들을 위한 비호庇護

권민주 행정 19

금쪽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요즘 세간의 관심이 쏠린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온영 박사가 사연자의 행동 개선에 도움을 준다. 금쪽은 '아주 작은 금' 혹은 '아주 귀한 것'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 후자가 사연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아이뿐 아니라 성인까지도 '금쪽'으로 분류되는 건 어쩐지 낯간지러울 수 있겠다. 옛날 옛적 전래동화에서나 부모가 아이를 어화동동 안으며 금 같은 내 새끼라고 했지 싶을지도 모른다.

유년 시절에 어린아이들은 쉬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성장하면서 정신적 성숙이 함양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다. 이로써 발생한 우울 증 같은 정신질환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갇아 먹는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베이비붐 세대와 그 밑의 X세대에게는 정신보다 육체를 돌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신질환과 정신과 방문이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닌 현시대상이 달갑지 않을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부모는 10대부터 2-30대에 이르는 자녀들의 우울증에 정신력 쇠약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부재는 기성세대와 디지털 세대(밀레니얼 세대 및 MZ 세대) 간 갈등의 근본적 이유일지도 모른다. 기성세대가 주도해온 회식문화는 개인주의가 도래함에 점점 몸집을 줄여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 식당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는 가속화됐다. 위드 코로나가 선언됐다 해도 팬데믹으로 뉴노멀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을 리 없다. 디지털 세대는 이미 잘 가고 있는 기차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노선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게다가 현재 자신이 탄 기차가 아닌 다른 철로를 선택한 기차들의 소식도 알 수 있어 고민은 깊어진다. 시아가 넓어짐에 따라 자

아실현과 노동이 겹치지 않은 채, 24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더 좋은 선택을 위해 이직을 감행한다. 그 때문에 회식과 같은 조직 연대 행위는 일시적이며 부차적인 것에서 그친다.

하지만 이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정 없애 보이기 십상이다. 디지털 이전 세대의 경우, 연료를 준비해 기차를 출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심중팔구였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금쪽' 프로그램 이야기로 돌아오자. 온영 박사는 매주 등장하는 사연의 주인공들을 나무라거나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에 공감해 판단한다. 나이 들은 특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다. 타인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는 자는 소위 말하는 꼰대가 아닌 나이 있는 조언자로서 자연스럽게 군림할 수 있다. 그 권력은 결코 자의가 아닌 타의로써 지어졌을 테다.